

광주시, 50억 투자해 일자리 560개 만든다

광주시가 올해 뿌리·자동차·가전 업종에서 560개의 일자리를 새로 만든다.

광주광역시(시장 강기정)는 고용노동부의 '2025년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 사업'에 선정돼 국비 38억5000만원을 확보, 본격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지역 특성과 산업 여건에 맞춘 맞춤형 일자리 창출과 고용의 질을 개선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광주시는 이번 공모 선정으로 확보한 국비에 시비 11억8700만원을 투입해 총 50억3700만원으로 뿌리·자동차·가전 기업 559개의 일자리와 재직근로자 고용 유지, 기업 근로환경 개선 등에 나선다.

공모 사업은 지역의 주요 산업 분야를 대상으로 하는 ▲뿌리산업 플러스 일자리 사업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 지원사업 ▲가전산업 내일 프로젝트 등 총 3개 사업이다.

노동부 '일자리창출 지원' 선정... 국비 38억5000만원 확보

뿌리·자동차·가전기업 일자리창출·고용유지·근로환경 개선

뿌리·자동차산업은 3월, 가전산업은 4월부터 선착순 모집

전라남도는 외국인 주민의 조기 정착과 생활 편의를 돕기 위해 영암 대불국가산업단지에 '전남 외국인 주민 통합지원 콜센터(1588-5949)'를 본격 운영한 지 2개월 만에 899건의 상담 실적을 달성했다고 밝혔다.

전남도는 지난해 말부터 서울, 광주, 천안 등 유사 시설을 벤치마킹해 이력 관리, 통계 관리, 다국어 지원, 3차 통역 지원 등 외국인 상담시스템을 구축했으며, 지난해 12월 시범 운영을 거쳐 올해 1월부터 콜센터를 본격 운영했다.

올해 1~2월 상담 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용자는 한국인 368명, 외국인 근로자 127명 순이다. 언어별로는 베트남어 275명, 한

전남 외국인주민 통합지원 콜센터, 2개월만에 상담 899건

1~2월 실적... 외국인 근로자·베트남어·출입국 관련 많아

전라남도는 행정안전부의 2025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공모에서 20개 마을기업이 선정돼 전국(135개) 최다를 기록했다고 밝혔다. 전남 다음으로 전북·경북 각 15개소, 강원 12개소 순으로 많이 선정됐다.

마을기업은 신규·재지정·고도화 등 단계별로 육성된다. 이 가운데 공동체성 실적이 높으면 우수 마을기업에, 기업성 실적이 높으면 모두에(愛) 마을기업으로 육성된다. 올해 전남지역 선정 마을기업은 신규 8곳, 고도화 11곳, 모두에 1곳이다.

신규 마을기업은 직접적인 보조금 지원은 없지만 공공기관 우선 구매 대상이 되며, 제품 개발, 판로 지원, 전문 컨설팅 등의 간접 지원을 받는다. 고도화 마을기업은 3년 이상 사업을 운영하며 뛰어난 성과

전남도, 행안부 마을기업에 20곳 전국 최다

신규 8·재지정 11·최고 단계 '모두에' 1곳... 지역경제 활력 기대

광전매일신문 기사제보 TEL. (062) 525-9775 FAX. (062) 528-4566

로 개척, 재직자 교육훈련) ▲가전내일 청년 특화지원(지원금, 장려금, 근로환경개선 등) ▲고용기반 구축 등 6개 사업에 31억원을 투입해 4월부터 추진할 계획이다.

뿌리산업 플러스 일자리사업과 자동차업종 상생협약 확산지원 사업은 사업참여자 모집을 24일부터 시작해 예산 소진 때까지 선착순 모집한다. 광주시 (www.gwangju.go.kr), 광주경영자총협회(www.gjef.or.kr), 광주상공회의소(www.gjcci.or.kr) 누리집을 참고하면 된다.

이계두 노동일자리정책관은 "이 사업을 통해 지역 주력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양질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근로자들이 안전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일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지역산업 생태계 개선과 일자리 질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영길 기자

광주은행, '기아 챔피언스카드' 출시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입장료 최대 5,000원 할인

광주은행(은행장 고병일)은 2024 KBO 한국시리즈 우승팀인 KIA 타이거즈와 특별한 협업을 통해 '기아 챔피언스카드'를 출시했다고 밝혔다.

'기아 챔피언스카드'는 2025년 KIA 타이거즈의 13번째 우승을 기원하는 의미를 담아 출시한 카드로,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경기장과 일상생활에서 다양한 혜택을 제공해, KIA 타이거즈를 응원하는 팬들에게 특별한 즐거움을 선사할 계획이다.

'기아 챔피언스카드'는 카드 디자인에서도 독특함을 더했다. KIA 타이거즈의 상징을 담아 원정 유니폼, 홈 유니폼, 야구공, 마스코트 총 4가지로 제공되며, 소비자는 자신만의 취향에 맞는 디자인을 선택할 수 있다.

주요 혜택으로는 ▲광주-기아 챔피언스 필드 경기장에서 열리는 홈경기 예매 시 입장료 2,500원이 즉시 할인(온라인 및 현장 매표소)되고, 추가 2,500원이 캐시백으로 제공되어 최대 5,000원의 혜택을 누릴 수 있다. 이 서비스는 전월실적 조건 없이, 1월 1회

해 노무, 법무, 세무 관련 전문가, 대학, 민간단체와 협업체를 구성하고 협력 관계를 확대해 전문 상담이나 지원이 필요할 경우 연계 서비스를 하고 있다.

앞으로 콜센터는 이용자 수요에 맞춰 올해 하반기 태국어, 스리랑카어, 필리핀어, 우즈베키스탄어를 추가해 총 9개 언어로 서비스를 확대할 예정이다.

김명신 전남도 인구청년이민국장은 "이번 콜센터 상담 실적을 통해 도민과 외국인 주민 간 언어 장벽이 예상보다 크다는 점을 실감했다"며 "앞으로 단순한 상담 창구를 넘어 외국인 주민의 실질적 문제 해결 중심지로 자리매김토록 체계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라고 말했다. /신종팔 기자

기업 모델 구축에 집중해 전국 최다 선정 결실을 봤다.

김준철 일자리경제과장은 "이번에 선정된 마을기업이 공공구매 시장에 진입함으로써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도록 지원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위해 마을기업과 소통을 강화하고 안정적 매출 확보를 위한 판로 확대 및 경영 컨설팅 등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전남지역에는 208곳의 행정안전부 지정 마을기업이 있다. 이는 전국 마을기업 1천800개소의 11.6%를 차지하는 규모로 가장 많다. 2023년 현재 전남지역 마을기업의 총매출은 373억 원, 고용 인원은 1천481명에 달하며 지역 경제와 공동체 발전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우인 기자

전남도, 기업·도민 경제활동 걸림돌 해소 온힘

현장의견 들어 규제 43건 발굴... 중앙부처 건의해 완화 추진

전라남도는 21일 도청에서 '2025년 상반기 중앙규제 개선과제 발굴 보고회'를 열어 지역 개발·기업 성장 등 도민 경제활동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생활상 불편을 주는 총 43건의 개선과제를 발굴, 해소 방안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속도 제한 심야 시간 미운영 ▲한부모 가정 육아 휴직 기간 18개월에서 29개월로 확대 ▲전남형 만원주택 사업 추진 절차 간소화 및 공급기준 특례 마련 등 도민 편의·복지 증진과 관련한 16개 과제를 발표했다.

또한 농업진흥지역과 상수원보호구역, 수자원보호구역에서의 행위제한에 대한 규제 완화와, 지방도 해상교량(연륙교·연

도교) 건설·노후 거점 산단에 대한 국비 지원 신설 및 국가산단 진입도로 유지관리비 국비 지원 요건 완화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한 과제도 보고됐다.

전남도가 발굴한 과제를 중앙정부에 건의하면 소관부처의 개선 수용 여부가 상반기 중 회신된다. 전남도는 소관부처의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개선 미수용 과제에 대한 대응 논리 개발 등을 통해 지속 개선할 계획이다.

명창한 전남도 행정부지사는 "이번 발굴 과제가 중앙정부 제출 이후 사장되지 않고 해결되도록 개선 필요성에 대한 논리 보완 등 체계적 관리에 나서달라"고 당부했다. /염선호 기자

